

현민 여러분께

연말 이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음식을 매개로 한 감염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시마네현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점, 또한 1월 2일에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의 지사가 정부에게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시마네현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음식점 이용에 대해서, 각 점포에서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을 철저히 지킬 것, 현민 여러분께도 대책을 지키고 있는 점포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 외부 사람과의 식사」는, 음주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현 내에서도 현 외에서도 삼갈 것.
연말연시에 시마네현 외부에서 귀성하신 분이 계신 가정은, 귀성객이 돌아간 후, 2주간은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음주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식사를 삼갈 것.
연말연시에 시마네현 외부로 귀성하신 분도, 시마네현으로 돌아오신 후의 2주간은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음주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식사를 삼갈 것.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 ① 현 외에서도 이용을 삼갈 것
- ② 현 내에서도 현 외부인과의 이용을 삼갈 것

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돗토리현과 생활(통근, 쇼핑 등)권역에 속하는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지역은 현 내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과의 왕래는 삼가십시오.
단, 업무나 취업 활동, 수험, 장례, 병간호 등의 왕래는 삼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예약한 티켓 등의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1월 4일

시마네현 지사 마루야마 다쓰야